

지역 매아리

정읍시보건소, 재가암환자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가 재가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의 투병 의욕을 높이고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12일 일정이 마무리된다.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암 환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0일부터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음 나눔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레크리에이션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1:1 가정방문 건강관리와 암 의료비 지원, 영양제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암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암 환자의 재활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미국 등 3개국 방문 교류 강화

권익현 부안군수가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코스타리카와 캐나다, 미국 등 3개국을 방문, 국제교류 강화에 나섰다.

이번 코스타리카 방문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부안군은 사회적경제인대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협동조합을 비롯해 에너지 지열협동조합, 낙농협동조합, 전기통신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 및 교류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와 사회적 기업 라토후(La Tohu), 미국 뉴욕 최대 규모 공급업체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등을 둘러보고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만나 해당 도시의 경험과 노하우도 청취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코스타리카는 사회적경제가 전체 고용의 1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건설한 지역경제가 구축된 국가"라며 "부안군도 이번 방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가브랜드 가치 보존 총력

정읍시, 세계유산 무성서원 관리·활용방안 마련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의 활용과 관리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시는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원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지도와 활용도는 물론 서원의 가치를 높여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유전섭 정읍시장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비조(鼻祖)인 고운 최치원의 숨결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무성서원은 정읍의 정신적, 문화사적 큰 자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무성서원신 비문화수련원(이하 선비수련원) 건립이다. 시는 진즉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선비정신 수련과 풍류 문화를 배우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거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비수련원은 무성서원 인근 4만2천492㎡ 부지에 세워진다. 선비문화수련원과 체험,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이고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지도를 높이고 서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와 함께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과 공연·강좌·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해 11월까지 최치원의 사상과 현기투의 풍류를 찾아서 라는 주제의 서원스테이 및 체험·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는 무성서원 모현회(회장 이치백)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콘텐츠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최치원과 정극인 등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로 알아보는 풍류와 도에 대한 강좌와 나라사랑관현악단, 전라정가진흥회의 공연을 진행한다. 무성서원 본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강학당을 운영하고 서원과 주요 역사 관련 장소를 답사하면서 예절과 다례·사자소화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서원스테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전북도 등과 협의 유네스코 등재 선포식 등의 기념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시는 더불어 다류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무성서원의 가치를 공유토록 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유 시장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 가치가 특정한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인류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을 잊지 않고 정읍지역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높여가는 노력에 발맞춰 서원의 보존과 관리방안 마련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칠보면 무성리에 위치한 무성서원은 지난 6일 아제트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국이 신청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최종 확정했다.

무성서원은 신라 말 태산의 태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태산사가 뿌리다. 태산사가 무성서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숙종 때인 1696년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으면서이다.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 서원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198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 철폐령 속에 살아남았던 전라북도 유일의 서원이기도 하다.

최치원과 정극인 등 이 지역에서 성리학의 가치를 보급하고 학문을 장려한 7명의 인물을 배향하고 있다.

특히 주민 자치규약인 향약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고현동향약을 시행했다.

을사늑약(1905년) 체결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에 항거하여 만안 최익현을 중심으로 1906년 호남 최초의 의병을 창당한 역사적 현상이기도 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정부 주도 추진

김광수 부안군의원, 임시회 자유발언서 주민 생존권 강조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번산·계화·하서·위도면 선거구)이 9일 부안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 정부 주도



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위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위도 구석구석을 편안하게 돌아보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도~식도를 잇는 연도교 설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식도에 거주하고 있는 168명의 주민들은 바다 기상 상황에 따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위도 본섬에 있는 학교에 등교도 하지 못하고, 생활품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생활 불편을 당게는 최장 20일 간헐이나 고립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책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 분석보다는 낙후지역인 식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새만금공항 건설 여타 면적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 등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은 연도교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된 기준보다 주민 생존권, 지역 균형 개발 등의 다양한 가치가 우선 적용되어 본 사업의 추진이 최종 확정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사회단체, 지역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부안군의회 제302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운영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비롯하여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생물권보전 의미와 가치 공유해요”

고창 선운산유스호스텔서 국내 첫 MAB청년포럼 개최

전국 각지에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찾아온 60여명의 청년들이 나흘간 환경과 생태보전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

고창군이 9일 오후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제1회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청년포럼 기념식을 열었다.

유기상 고창군수, 환경부 이호중 국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조도순 MAB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국에서 온 60여명의 청년들을 환영했다.

이번 포럼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돕고,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연구·생태관광·교육 등 생물권 보전과 발전을 위한 청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포럼을 국내 최초 지역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첫날에는 MAB한국위원회 조도순 위원장의 MAB와 생물권보전지

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지현 선임 전문관의 '유네스코 이해하기',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명예교수의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의 기초강연이 이어졌다.

2일차(10일)에는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의 발표 사례와 참가자들 간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3일차(11일)에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직접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장답사, 4일차(12일)는 청년포럼에 참가한 소감과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자신의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뒤 마무리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많은 청년들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생물권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전세계가 인정하는 생물권 보전의 모범 사례로 거듭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건강생활팀(☎539-6088, 6094~6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맞춤형 모바일 앱으로 시민건강 지켜요”

정읍시보건소, 헬스케어사업 본격시행...전문가상담서비스제공

정읍시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시민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지난 1일 본격 시행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과 활동량 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소는 혈액검사와 체성분검사, 혈압검사, 허리둘레 측정을 통해 참여자 90명을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자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1개 이상의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복부 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안고 있는 자다.

참여자에게는 심박 수와 보행 수, 소모 칼로리 등을 기록하는 손목형 스마트 활동량 계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자신의 운동량과 건강 상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

보건소는 스마트폰 앱에서 수집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의,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팀은 주 1회 건강정보 콘텐츠를 안내하고 월 1회 건강 실천 리포트와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또 참여자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서 매일 식사와 운동량, 혈압, 혈당수치 등을 입력하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미션 수행 우수자에게는 순위별로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featuring various wine bottles and gift sets.